

# 한국미션건축에 있어서 장로교 소속 개척선교사들의 건축활동에 관한 사적 고찰

정 창 원

(東京大學 生産技術研究所 技術補佐員)

주제어 : 기독교, 장로교, 미션건축, 개척선교사

## 1. 서론

개항이라는 역사적 사건은 생명력을 가지고 자기 개발을 추진하던 한국 사회에 급변의 개혁을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 거센 물결 속에서 공식적으로 선교를 인정받은 기독교는 종교계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 전반에 폭넓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영향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일례로 1917년 매일신보에 한국 최초의 장편소설, 「무정」을 연재하며 변화의 선두에 서 있던 이광수는, 「기독교가 한국에 가져다 준 이익」<sup>1)</sup>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기독교가 한국에 공헌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

1. 서양정세의 파악
2. 일반인의 도덕성을 가속화
3. 교육의 확충
4. 여성신분의 향상
5. 조혼풍습의 폐지
6. 한글의 보급
7. 한국인의 정신세계를 자극
8. 개개인의 자의식을 확립

이 개략적인 내용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기독교의 전래는 기존의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던 한계

를 벗어나 국제 감각을 키우고, 일반인들을 근대인으로서 교육, 계몽시키며, 소외된 계층인 여성의 문제를 부각시키는 등, 기독교는 근대 사회에의 여러 이슈들에 영향을 주었으며, 이는 비단 종교적인 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근대 사회라는 보다 폭넓은 자장에서 변화를 일으키고 있었던 것이다. 더욱이 기독교 선교와 관련된 시설, 즉 선교사 주택과 교회를 비롯하여, 병원, 미션스쿨 등의 미션건축<sup>2)</sup>이 건설되면서 기존의 한옥을 중심으로 한 건축계에도 그 변화의 양상이 뚜렷이 나타났다.

특히 1884년에 최초의 미국인 선교사 알렌이 한국에서 선교활동을 시작한 이래로 많은 선교사들이 선교활동을 위해 입국하였고, 이후 한국의 기독교는 세계의 주목을 받을 만큼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이에 미션건축도 기독교의 급성장에 맞추어 건축의 여러 면에서 많은 발전을 이루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미션 건축의 연구는 한국근대 건축사를 규명하기 위한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한국미션건축에 관한 연구에 있어서 미션 건축문화를 가지고 들어온 서양인

1) 이광수, 「The Benefits which Christianity has Conferred o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1918년 2월호, p.24

2) 현재까지 기독교와 관련된 건축에 대해 선행연구에서는 「선교건축」 또는 「종교건축」 등의 표현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등장하는 선교사 주택이 이러한 표현을 사용하기에 부적당함을 인식하고, 선교단체의 건축이라는 광의의 「미션건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선교사들의 건축활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미션건축, 더 나아가 한국근대건축을 규명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서양인 선교사, 특히 한옥건축에서 서양식 건축으로 융합, 발전해 가는 변화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 한국미션건축을 이끌고 나갔던 「개척선교사(Pioneer Missionary)」에 주목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한국에서 활동한 선교사들에 의해 선교활동의 보고서 성격으로 출간된 월간 잡지 『The Korea Mission Field(1905-1941년)』를 비롯하여, 장로교에서 발행한 연보고서인 『Korea Presbyterian Mission Report』 등, 당시에 발간된 1차 문헌자료의 조사·분석을 중심으로 하였다. 또한 한국교회사 관련 출판물과 각 교회와 미션스쿨 등 미션 관련 기관에서 간행한 기록물 및 역사서도 참고로 하였다.

특히 월간 미션잡지 『The Korea Mission Field』는 1905년 11월부터 발간되어 1941년까지 한번도 휴간되는 일없이 매월 발행되었다는 점, 각 종파의 선교사들의 활동보고와 관련소식 등을 종합적으로 게재했다는 점에서 귀중한 문헌자료라고 하겠고, 본 연구에서는 이 잡지를 최대한 활용하였다.

이상의 문헌조사를 통해 당시 한국에서 미션건축에 종사한 수명의 개척선교사를 파악할 수 있었고, 한국 미션 건축사에 큰 영향을 남긴 북장로교 소속의 개척선교사 그래함 리(Graham Lee)에 대해서는 선행연구<sup>3)</sup>를 통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그 후속연구로서 초기의 미션관련 건축활동에 종사한 기록을 발견할 수 있었던 개척선교사로서 남장로교의 윌슨(R. M. Wilson), 그리고 북장로교의 샤록스(A. M. Sharrocks)와 클락(C. A. Clark)을 중심으로 초기 장로교의 미션건축의 전개양상의 일면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는 지금까지 건축에 종사한 선교사들의 실체가 규명되지 못했던 미션건축 관련 연구에 있어서 기초적 연구가 된다는 의의가 있다.

3) 정창원, 「한국미션건축에 있어서 개신교 개척선교사의 활동과 영향에 관한 연구 - (1) 그래함 리(Graham Lee)의 건축활동을 중심으로 -」, 『건축역사연구』 제13권 2호, pp.57-70(2004년 6월)

## 2. 선교사 주택건설에서 교회건설에 이르는 건축활동

1904년부터 북장로교의 미션 스테이션<sup>4)</sup>으로 지정된 청주는 밀러(F. S. Miller)에 의해 선교지의 개척이 시작되었다. 그는 우선 폐허가 되어있던 불교사원을 발견하고 그 대지를 미션 컴파운드<sup>5)</sup>의 부지로 구입하였다.<sup>6)</sup> 부지를 구입한 밀러는 자신의 가족이 기거할 주택으로 게이트 하우스(Gate House)라고 명명한 주택건설에 착수하였고<sup>7)</sup>, 밀러 자신이 그 지역의 미션건축을 직접 지휘하며 교회활동을 하였다.<sup>8)</sup> 즉, 그는 청주지역의 개척선교사로서 선교활동을 위한 미션 컴파운드의 부지선정과 구입을 비롯하여, 자신의 주택을 포함한 초기의 미션건축에 참여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의 각지에 설치된 미션 스테이션에 있어 그 개척 초기의 선교사 주택은 한국인 도편수의 도움을 받아 가면서 이들 개척선교사들의 자력에 의해 건설되어졌다.

그 사례를 소개하면 우선 캐나다 장로교 소속의 그리얼슨(John Grierson)을 들 수 있다. 그는 내한 선교사로서는 드물게도 장기간 캐나다에서 교회활동 및 미션사업에 종사한 이후, 75세의 고령으로 한국에 건너온 선교사였다. 그는 1901년에 성진(城津, 현재 북한에서의 지역명은 김책)을 개척하는 임무를 부여받았고, 개척 초기의 그리얼슨 부부는 창고와 같은 곳에 기거하면서 한옥양식으로 새로운 주택을 계획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의 아들과

4) 미션 스테이션(Mission Station): 선교사가 상주하면서 활동을 한 선교활동의 거점도시로서 당시의 선교사들은 그 거점도시를 「미션 스테이션」이라고 하였다. 미션 스테이션은 1884년에 최초의 선교사가 정착한 서울에서 시작하여 각 선교단체의 입국과 선교사업의 확대와 더불어 그 수가 증가되는데, 1916년에 설치된 철원 스테이션을 마지막으로 한반도에 총 30개의 미션 스테이션이 설치되었다.

5) 미션 컴파운드(Mission Compound): 미션 스테이션이 선교사가 상주하며 활동하는 거점도시를 칭하는 표현이면, 미션 컴파운드는 그 거점도시 안에서 선교사들이 집단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선교회에서 구입한 선교부지(선교촌)를 가리킨다.

6) 「The Purchase of a Station Site at Chong Ju」, 『The Korea Mission Field』, 1906년 3월호, pp.96

7) 「A Letter from Chong Ju」, 『The Korea Mission Field』, 1909년 8월호, p.128

8) 「Note on Work in Chongju」, 『The Korea Mission Field』, 1906년 9월호, p.206

한국인 도원수의 도움을 받으면서, 자신이 젊었을 때 몸에 익힌 목수 실력을 발휘하여, 이 한옥양식의 새로운 주택 계획을 직접 추진하였다.<sup>9)</sup>

다음으로 1905년부터 공주를 개척한 샤프(R. A. Sharp)라는 선교사가 있다. 그는 다음해의 보고서에 자신의 건축활동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공주에 부임해서부터 나는 자신의 주택 건설에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에 먼 거리를 비롯한 많은 지역을 탐방하며 전도활동을 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건설청부업자를 고용할 정도로 건설비용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주택 건설을 담당하였기 때문이었다.」<sup>10)</sup> 샤프는 일일노동자의 관리를 비롯하여 목재를 입수하기 위하여 몇 마일을 뛰어들었고, 유리를 자르고 세팅하는 작업이나 페인트칠 등, 그 전부를 본인이 직접 도맡아 하였다. 1905년 11월에 완성된 그의 주택에 대해서는 그 상세한 모습을 파악할 기록이 남아 있지 않으나, 그 주택을 보기 위해 모여든 다수의 주민들로부터 「천국과 같다」라고 감탄을 불러모으기에 충분하였다고 한다.<sup>11)</sup>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주택이 준공되던 다음해에 순회전도 중에 장티푸스에 감염되어 타계하고 말았기 때문에<sup>12)</sup>, 그의 건축활동은 그의 주택건설에서 그치고 말았다.

한편, 이들 개척선교사들 중에는 자신의 주택에 머물지 않고, 그 외의 미션 관련 시설의 건축까지 담당하는 이들이 등장하였다. 1892년에 남장로교의 초기 선교사로 내한한 진킨(W. M. Junkin)은 전주를 개척한 선교사였다. 특히 그가 담당했던 전주 서문교회는 예배당이 신축되기는 하였으나, 늘어나는 신자를 수용할 수 없어 예배당 앞의 마당에서 예배가 진행될 정도였다. 거기서 그는 새로운 교회건축을 위해 부지를 전주의 서대문 밖에 있는 대로 옆으로 옮겨, 본인 스스로 주야로 건축 계획과 건설활동에 참가하여 1905년에 새로운 예배당을 완성시키기에 이른다.<sup>13)</sup>

그리고 목포 스테이션의 헤리슨(W. B.

Harrison)도 1911년의 보고에서 지방순회전도, 교육, 건축, 그리고 일반 관리활동 등, 직접적인 선교활동 외에 부수적인 사무마저 담당했었음을 알 수 있으며<sup>14)</sup>, 이처럼 초기에 한국에 건너온 개척 선교사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모든 일을 해내야만 하는 「전능형 인간」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일례로 한국의 남부지방을 여행했던 베시(Frederick G. Vesey)의 눈에 비친 당시의 선교사들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서술될 정도였다. 「이들 선교사의 일과는 소식을 듣기 전부터 늦은 야식을 들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 하루일과의 내용은 수업, 상담, 회의, 학교나 교회의 사무, 방문전도, 건축관련의 사무, 미션 스테이션에 필요로 하는 토지 및 목재 등의 구입 등등으로 이루어졌다. (중략) 특히 의료선교사는 본업인 의료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오전에는 일반진료, 오후에는 수술을 집도함과 동시에 학교에서의 지도, 병원이나 주택 등의 건설, 도로건설과 배수시설의 확충, 건축대지의 정지작업, 벌목 등의 지도감독에 이르기까지 미국에 있는 의사로서는 믿어지지 않는 다양한 일을 담당하고 있다.」<sup>15)</sup>

여기서 베시가 남부지방에서 목격한 의료선교사의 예는 광주에서 활동한 윌슨(R. M. Wilson)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었을까 라고 추측한다.

### 3. 윌슨(R. M. Wilson, 한국명: 禹一善)의 건축활동

1905년에 남장로교의 의료선교사로 내한한 윌슨(Robert Manton Wilson)은 1880년 미국 콜롬부스에서 태어나, 1905년에 워싱턴 대학교에서 의학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그 해에 한국에 건너 왔다.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될 때까지 의료사업에 정진하였고, 1963년에 버지니아주 리치몬드에서 세상을 떠났다.<sup>16)</sup>

그는 한국에서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일본에 있는 어떤 선교사는 다음과 같은 제안을 받았다고 한다. 그것은 시간이 날 때만이

9) 「Historical Sketch」, 『The Korea Mission Field』, 1922년 10월호, p.212

10) 「Evangelistic Work of Chung Chung Province」, 『The Korea Mission Field』 1906년 7월호, p.162

11) 전계서(10)

12)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내한선교사총람』, p.462

13) 「Work at Chunju」, 『The Korea Mission Field』, 1906년 1월호, p.52

14) 「Last Year's Evangelistic Work in Mokpo」, 『The Korea Mission Field』, 1912년 1월호, p.30

15) 「Six Weeks in Southern Korea」, 『The Korea Mission Field』, 1911년 2월호 p.44

16) 전계서(12) p.528

라도 언제나 좋으니 저녁에 우리 마을에 와서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 천문학, 화학, 철학, 종교 등등, 당신이 아는 모든 것을 친절하게 가르쳐줄 수 없는가 라는 제안이었다. 이것은 해외의 선교지에 와있는 의사가 간호부와 약제사를 교육하고, 선교 활동에 교육활동은 물론이고, 자신의 병원을 세우기 위해 목수, 배관공, 그리고 건축가로 변신하는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가 될 수밖에 없는 사정과 일맥상통한다.»<sup>17)</sup>

윌슨의 이 기록 속에 적혀 있는 '해외의 선교지에 와있는 의사'라는 신분은, 바로 광주라는 선교지에 와있던 자신의 모습과 겹쳐진다. 즉 자신이 타국의 도시, 광주에서 본업인 의료활동 이외에도 병원건축에도 손을 대고 있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그는 3년 간의 한국어 학습을 마친 뒤, 광주에 세워지는 여성관, 여학교, 병원, 그리고 남학교의 건설활동에 1년간의 세월을 보냈다.<sup>18)</sup> 또한 그는 광주기독교병원과 더불어 광주의 나병환자를 위한 시설(Lepers Home)의 건설활동에도 참가하였다.<sup>19)</sup> 이처럼 그가 담당한 건축으로 자신이 근무한 병원(광주 기독교병원), 남학교(송일학교), 여학교(수피아여학교)는 1911년부터 1912년에 걸쳐 완성되었다.

윌슨이 계획에 참여했던 건축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광주 기독교병원(Ellen Lavine Memorial Hospital)은 기부자인 그레함(C. E. Graham)의 딸을 기념하여 명명되었고, 회색벽돌의 3층 구조로 미션 컴파운드의 앞쪽에 있는 언덕에 1912년 1월에 완성되었다.<sup>20)</sup> [그림1]에서 알 수 있듯이 광주 기독교병원은 3층이라는 상당히 큰 규모이지만, 층고를 달리한 입면구성과 이에 따른 기와지붕의 중복되는 선,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지붕을 뚫고 나온 굴뚝이 경쾌한 느낌을 주는 건물이라 하겠다. 비록 전통적인 한옥의 규범을 깨트리고, 마찬가지로 서양 건축의 규범을 충실히 따랐다고도 볼 수 없으나, 한국 건축에 외래의 건축요소를 과감하게 수용하여 변화를 이끌어 낸 점은 새로이 평가받아야 할 부분인 것이다.



[그림1] 광주 기독교병원  
(출전: 『광주제일교회 90년사』)

다음으로 송일학교는 1908년부터 벨 선교사의 주택에서 수업을 시작하여 광주 지역 초기의 미션계 학교로서 자리를 잡은 교육시설이었다. 그러나 급증하는 학생을 선교사의 주택 내에 전부 수용할 수 없었기에, 1910년에 새로운 교사건축에 착수하여 1911년의 크리스마스 무렵에 완성을 보았다. 1층은 8개의 교실과 사무실, 2층에는 교실 겸용의 채플로 구성되어졌고, 현관 상부에 종탑이 설치된 이 신축 교사 건물은 당시 광주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서 주민들의 이목을 끌었다고 한다.<sup>21)</sup> 또한 그는 자신이 계획한 송일학교의 수공부(手工部)에서 기술교육을 담당하기도 하였다.<sup>22)</sup>



[그림2] 송일학교  
(출전: 『사진으로 보는 송일, 90년 역사』)

마지막으로 수피아 여학교는 1911년에 스텐스(M. L. Sterns) 여사의 건축비 5천 달러의 기부로

17) 「Medical Work in Kwang Ju」, 『The Korea Mission Field』, 1912년 1월호, pp.15

18) 전게서(17)

19) 「Medical Report of Kwangju Station」, 『The Korea Mission Field』, 1912년 10월호, p.290

20) 전게서(19)

21) 『사진으로 보는 송일, 90년 역사』, pp.5-6

22) 전게서(19)

새로운 교사건축이 가능하였고, 그녀의 동생인 수피아(Jennie Speer)를 기념하여 학교명이 수피아로 결정되었다. 1층에는 기숙사를, 2층은 3개의 교실로 구성되었고, 회색벽돌을 사용한 벽돌조로 완성되었다.<sup>23)</sup>

이들 월슨에 의해 계획된 광주의 미션건축은 회색벽돌(gray brick)을 사용한 벽돌조 건물로, 그 위에 기와지붕을 올린 한양절충건축이었다. 특히 이들 건축에 회색벽돌이 사용되었다는 점은 큰 특징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의 건축재료에 대한 1926년의 보고에 의하면 당시의 벽돌은 지역에 따라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이 각각 벽돌제작을 하고있었는데, 그 국적별로 형태가 달랐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장로교가 관할하던 전라도 지역에서는 대부분 한국인이 생산한 회색벽돌이 사용되었다고 하니<sup>24)</sup>, 전라도 지역에서는 일찍부터 미션건축과 더불어 한국인에 의해 벽돌생산이 시작되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이들 월슨에 의한 미션건축은, 1904년부터 미션 스테이션으로 개척이 시작된 광주에 있어서 임시건물을 사용하던 미션시설들이 본격적인 건축물로 정비되어졌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단 그의 건축은 [그림2]의 숭일학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전체적인 비례나 디테일에 있어서 완성도가 높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1905년에 워싱턴대학교에서 의학박사를 취득하고 그 해에 바로 한국에 건너왔다는 그의 경력<sup>25)</sup>에서도 알 수 있듯이 건축관련 경험의 전무였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이렇듯 전문적 건축교육을 받지 않은 개척선교사가 건축가로서 또는 현장감독으로서 참여한 건축은 한국인 도편수의 경험을 빌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 둘이 만들어낸 합작품으로 한양절충건축이라는 독특한 건축문화가 탄생하기에 이른다.

그러한 그의 건축활동도 1911년부터 1912년 사이에 완성된 이들 건축물 이외에 밝혀진 것이 없다. 그것은 1911년에 남장로교에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선교사 스윈하트(M. L. Swinehart)가 내한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스윈하트가 내한한 이후

의 월슨은 1940년에 일제에 의해 강제 추방될 때까지 본업인 의료활동에 정진하였고<sup>26)</sup>, 그는 건축을 전문으로하는 선교사가 파견되기 이전에 계획된 광주의 초기 미션건축을 개척한 선교사로 평가할 수 있다.

#### 4. 샤록스(A. M. Sharrocks, 한국명: 謝洛秀)의 건축활동

##### 4-1. 샤록스의 이력

평양과 의주의 중간에 위치하는 선천(宣川)은 1901년에 북장로교의 미션 스테이션이 설치된 이후에 급속도로 복음이 전파된 도시이다. 특히 1907년에 이르러서는 북장로교의 미션 스테이션 중에서 신자수와 신자의 기부금에 있어서 서울을 압도하였고, 북장로교 활동의 중심지인 평양에 버금가는 기독교의 세력을 형성하였다.<sup>27)</sup>

이렇듯 일찍이 기독교가 성장한 선천 스테이션을 중심으로 초기 한국미션건축의 개척에 참여한 대표적인 개척선교사가 샤록스(Alfred M. Sharrocks)였다.

그는 21세 되던 해에 기독교인으로서 일생을 바치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선교사가 되기 위해 파크 컬리지(Park College)에 입학하였다.<sup>28)</sup> 파크 컬리지는 교육 커리큘럼 자체에 학생들에게 해외 선교지의 개척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동을 바탕으로 한 현장실습교육이 짜여져 있었다.<sup>29)</sup> 따라서 재학중의 샤록스 또한 4년간 개척선교사로서의 실용적인 경험을 쌓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개척선교사로서의 충분한 교육을 받은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 한층 더 유능한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새로운 경험을 쌓기로 마음을 먹었다. 해외에서의 전도활동에 있어서 의료활동이 가장 유

26) 전게서(12), p.528

27) 1907년도의 북장로교 연회회의 보고서에 따르면, 평양 (신자수: 20,414명, 기부금: 28,745원)

선천 (신자수: 15,348명, 기부금: 27,914원)

서울 (신자수: 7,435명, 기부금: 9,774원)

으로 선천은 평양에 다음가는 세력이었음을 알 수 있다.

「Notes on The Northern Presbyterian Mission Annual Meeting」, 『The Korea Mission Field』, 1907년 10월호, p.145

28) 「Notes from Syen Chun Station - History」, 『The Korea Mission Field』, 1911년 9월호, p.239

29) 「Honest Labor Makes The Man」, 『The Korea Mission Field』, 1911년 9월호, p.269

23) 「Anna McQueen, Jennie Speer School」, 『수피아 90년사』, p.193

24) 「Contracting in the Orient」, 『The Korea Mission Field』, 1926년 10월호, p.208

25) 전게서(12), p.528

용한 영역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그는 샌프란시스코의 쿠퍼 의과대학(The Cooper Medical College)에 진학하여,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899년에 의료선교사로 내한하였다.<sup>30)</sup>

한국에 건너온 그는 처음 1년 간을 서울에 체재하면서 한국어학습과 더불어 의료활동을 전개하였고, 다음해 1년 간을 평양에서 의사로서 활동하면서 본격적인 선교활동을 위한 준비과정을 밟았다.<sup>31)</sup> 그리고 이러한 준비과정을 마친 그에게 미선분부는 새롭게 설치되는 선교 거점도시로 선천 스테이션의 개척을 그에게 맡겼고, 선천에는 샤룩스 부부 와 휘트모어(N. C. Whittemore)에 의해 1901년 미선 스테이션이 설치되었다.<sup>32)</sup>

그는 선천 스테이션의 개척과 더불어 본업인 의료활동을 시작하였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제대로 된 병원건물이 없어 어두운 임시 한옥건물에서 진료를 하였다. 또한 첫 수술을 방바닥에서 집도하는 한편, 조수가 없어서 샤룩스 부인이 조수역할을 하는 등의 열악한 환경에서의 의료활동이었다.

또한 그는 의료활동과 전도활동뿐만 아니라 수년간에 걸쳐 남학교를 지도하였고, 게다가 선천 스테이션에 세워진 다수의 미선건축을 담당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소화해내는 전형적인 개척선교사였다고 할 수 있다.<sup>33)</sup>

#### 4-2. 샤룩스의 건축활동

샤룩스는 1901년, 선천에 최초로 세워지는 선교사 주택의 건설부터 건축활동에 종사하기 시작하였다. 그가 계획한 건축으로서 명확히 밝혀진 것은 최초의 선교사 주택인 허니문 하우스(Honey Moon House)와 자신이 의료활동을 전개한 선천 미동병원(In His Name Hospital)의 들밖에 없다. 그러나 실제로 「자신의 병원뿐만 아니라 그는 선천 스테이션에 세워진 대부분의 건축에 있어서 프랜을 작성하고 건설을 지도·감독하였다. 그리하여 미선분부에 있어서도 그의 건축능력은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하튼 선천 스테이션은 그의 기술의 은혜를 최대한 받은 곳이다. 그의 계획과 노력에 의해 선천의 미션 컴파운드는 훌륭하고 아름다

게 배치 계획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경 등의 경관 계획까지 잘 정리되어있다. 그는 언제나 방대한 양의 활동과 더불어 그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나간 것이었다.»<sup>34)</sup>라는 샤룩스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샤룩스는 선천에 있는 많은 건축물의 설계를 비롯한 건축활동, 그리고 선천의 미션 컴파운드의 랜드스케이프(landscaping)에 이르기까지 그 공헌도가 엄청난 것이었다.»<sup>35)</sup>라는 기록을 통해 초기에 세워진 선천 스테이션의 건축 대부분이 그에 의해 계획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선천이 미선 스테이션으로 지정된 후 10년이 지난 1911년의 미션 컴파운드에는 6동의 주택, 여자고등학교(보성여학교) 및 남자고등학교(신성학교)와 각각의 기숙사, 여성전도를 위한 시설(The Ann Jamison Building), 그리고 병원(미동병원) 등의 미선시설들이 정비되었고<sup>36)</sup>, 그는 이들 초기의 건축 대부분에 관여하였음에 틀림없다고 하겠다.

이들 샤룩스에 의한 건축활동을 그의 계획이 확실한 허니문 하우스와 선천 미동병원, 그리고 그가 계획했다고 추정되는 건축을 기타로 나누어 구체적으로 고찰한다.

##### 4-2-1. 허니문 하우스

샤룩스가 선천에서 최초로 계획한 허니문 하우스는 샤룩스 자신의 주택이었을 뿐만 아니라 개척당시의 6명의 선교사가 같이 이곳에서 생활을 하였고, 선교활동을 시작하기 위한 거점이었기 때문에 허니문 하우스라는 애칭으로 불리게 되었다.<sup>37)</sup>

허니문 하우스는 기존의 한옥을 개축하여 1901년에 완성된 것이었다. 이 주택은 [그림3]에서 알 수 있듯이 기존의 한옥 주택건축에 드문 형태의 합각지붕 모양의 돌출부가 중앙에 배치된 것이 큰 특징이라고 하겠다. 중앙에 돌출된 이 공간은 기존의 대청공간을 연장시켜 서양건축의 포오치에

34) 전게서(30)

35) 「Personalities」, 『The Korea Mission Field』, 1939년 6월호, p.122

36) 「Syen Chyun」, 『The Korea Mission Field』, 1911년 9월호, p.254

37) 「The Romance of Mission in Syenchun, Then and Now - A 4,000% Increase in 15years」, 『The Korea Mission Field』, 1919년 5월호, p.96

30) 「In Memoriam 1- Alfred M. Sharrocks, M. D.」, 『The Korea Mission Field』, 1920년 3월호, p.62

31) 전게서(30)

32) 전게서(28)

33) 전게서(30)





[그림3] 선천 허니문하우스  
(출전: 『The Korea Mission Field』 1911년 8월호)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오른쪽에 계단이 설치되어있어 기존의 한옥건축에서 볼 수 없었던 현관의 기능까지를 담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선천의 미션 캠퍼운드에는 최초의 선교사 주택인 허니문 하우스에 이어 1911년까지 6동의 주택이 세워졌고, 이들 주택 또한 샤룩스에 의해 계획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6동 그 전부가 목구조에 흙벽과 기와지붕으로 완성되었다는 기록을 통해<sup>38)</sup>, 나머지 주택들도 허니문하우스와 유사한 한양절충양식의 주택이었다고 추정된다.

한편 선천에 세워진 6동의 선교사 주택이 한양절충양식으로 계획된 것은 주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한국식으로 건축하였다는 기록<sup>39)</sup>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는 다음의 평양의 미션 캠퍼운드를 묘사한 기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북장로교의 평양 미션 캠퍼운드에 있는 모든 선교사주택은 흙벽에 기와를 얹은 한국식 건축으로 건설되어져 있다. 이들 주택의 외관은 기묘한 인상을 주며, 건물 자체가 불안정해 보이기 는 하나, 내부는 견고한 미국식 주택 그 자체다. 한반도의 북부에 있는 미션 스테이션의 장로교 선교사는 대규모의 교회를 비롯하여 선교사 주택에 있어서도 편리성의 문제를 떠나 한국식 건축 스타일을 선택해 왔다. 편리성, 영구성 등을 최고로 생각하지 않고, 양심에 따라 이와 같은 건축을 계획해 왔던 것이다. 또한 그들은 한국 교회가 이러한 것이 되어야한다고 믿고 있다.」<sup>40)</sup> 이상의 기록

을 통해 장로교의 미션 스테이션은 편리성이나 영구성의 문제 이전에 양심의 문제, 즉 초기에 내한한 선교사들의 한국에의 동화에 대한 노력과 사명감이 한옥으로 형성된 주위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선교사 주택을 의도적으로 한양절충양식으로 계획했다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한양절충양식에 대한 장로교의 의지는 비단 앞의 인용문에 등장하는 한반도의 북부지역만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청주나 대구 등, 북장로교가 관할한 남한지역의 미션 스테이션은 물론이고,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선교활동을 펼친 남장로교의 경우도 북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선교사 주택을 적극적으로 한양절충양식으로 계획하였다.

이상과 같은 한옥의 건축양식을 적극적으로 채용한 선교사주택은 그 내부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다. 단, 샤룩스가 기존 한옥의 개축한 허니문 하우스에 있어서 서양의 현관 포오치라는 개념이 등장한 사례를 비롯하여, 평양의 선교사주택들 또한 한국식 건축으로 건설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부는 견고한 미국식 주택이었다는 앞의 인용문은, 기존 한옥의 외부는 물론 내부에 있었어도 변화가 일어났음을 시사해준다. 즉, 이들 선교사 주택은 한국에의 동화라는 피선교지의 지역환경이라는 요인과 서양인으로서의 기본적인 생활방식의 준수라고 하는 기능성을 융합시킨 한옥과 서양식 건축문화의 절충건축을 만들어내었다. 이러한 한양절충양식은 기존 한옥의 개축에서는 물론이고, 신축의 경우에도 채택되어 전국 각지에 등장하였다. 그레함 리가 평양에서 설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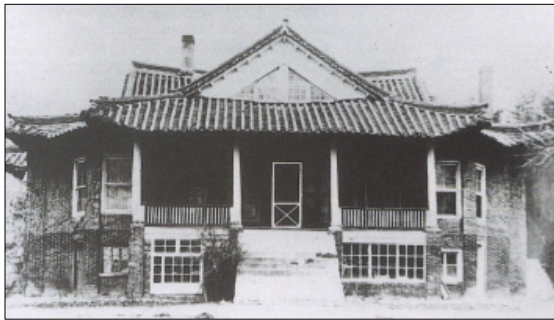


[그림4] 베어드 주택  
(출전: 『숭실대학교 100년사』)

38) 전계서(37)

39) 「Syen Chyun」, 『The Korea Mission Field』, 1923년 8월호, p.165

40) 「City of Pyeng Yang」, 『The Korea Mission Field』 (1907년 10월호), pp.150-151



[그림5] 광주 유진벨 주택  
(출전: 『수피아 90년사』)

베어드(Baird) 주택 (그림4)이나 광주의 유진벨(Eugene Bell) 주택 (그림5) 등이 그 일례이며, 이처럼 초기의 장로교 선교사 주택은 한양절충양식이 주류였음을 알 수 있다.

#### 4-2-2. 선천 미동병원

샤록스는 이상의 선교사 주택뿐만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의료활동을 펼칠 병원건축에도 한양절충양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였다.

의사였던 그는 선천 스테이션의 개척 당초에 임시의 한옥건물에서 의료활동을 하다가 1904년에 이르러 캘리포니아의 젊은 자선가의 기부로 새로운 병원건축의 준비를 진행시켰다.<sup>41)</sup> 그리고 다음해에 샤록스에 의해 미동병원(In His Name Hospital)이 완공되었으며,<sup>42)</sup> [그림6]의 앞부분에 있는 한양절충양식의 건물이 그것이다. 이 건물의 특징 또한 앞에서 설명한 허니문 하우스와 같이 모임지붕 형태의 현관 포오치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한옥건축에는 이와 같은 입구를 명확히 표현하는 습관이 없었고, 특히 현관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여기서 샤록스는 서양 의술을 전개할 자신의 병원건축에 서양 건축의 포오치에 해당하는 부분을 상징적이거나 한옥구조로 설치함으로써 한옥건축에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또한 그에 의한 이러한 실험은 후에 다수의 한양절충건축에 영향을 남겼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6] 선천 미동병원  
(출전: 『The Korea Mission Field』 1920년 3월호)

한편, 1905년에 완성된 한양절충양식의 병원은 사무실의 일각에 커튼을 쳐서 수술실로 사용했던 것<sup>43)</sup>으로 미루어보아, 아직 완벽한 병원건축이었다고는 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그는 새롭게 근대적인 병원건축을 계획하게 된다. 특히 그는 위생문제를 고려하여 앞으로의 병원건축은 벽돌조 또는 석조건축이어야 하며, 중앙난방, 상수도 및 펌프설비 등이 정비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sup>44)</sup> 즉 서양의술을 전개할 병원건축에 대해 그는 한양절충건축이 가지는 한계를 느꼈고, 이에 따라 그는 서양식 병원건축을 구상하기에 이른다.

새로운 설비의 병원건축을 수년 전부터 희망해 온 샤록스는 샌프란시스코의 The Occidental Board로부터 건축자금을 약속 받았고, 거기서 그는 스스로 작성한 건축계획을 미션본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게 되었다. 그 계획은 기존의 병원과 연결시킨 서양식건축으로 본격적인 수술실과 상담실, 부엌, 24명의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입원실로 구성되어졌다. 그리고 기존 한양절충양식의 병원 건물은 약국으로 사용하겠다는 구상이 포함되어 있었다.<sup>45)</sup>

새 병원건축은 1913년에 공사가 시작되었고, 같은해 또는 다음해에 완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완성된 새 병원은 [그림7]에서 알 수 있듯이 지하실과 지붕아래의 다락층을 가진 2층의 벽돌구조였

41) 『Korea Presbyterian Mission Report of The Syen Chyun Station』, 1904년도 연보고서, p.27

42) 전게서(28)

43) 『Syen Chun Bible Institute』, 『The Korea Mission Field』, 1913년 3월호, p.73

44) 『Altered Conditions』, 『The Korea Mission Field』, 1914년 7월호, p.207

45) 전게서(43)



다. 샤록스의 새 병원건축은 건축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의료선교사가 이 정도의 본격적인 양식건축을 완성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증명시키는 일례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림7] 선천 미동병원의 양관  
(출전: 『두고 온 교회, 돌아 갈 고향』)

단의 구성은 기존의 한옥건축에서 볼 수 없는 것이며, 남부교회에서는 돌출된 부분의 상부에 종탑을 올림으로서 한층 정면성이 강조되어있다.

한편 남부교회는 [그림11]와 같이 후에 증축되어 북부교회와 비슷한 T자형 평면으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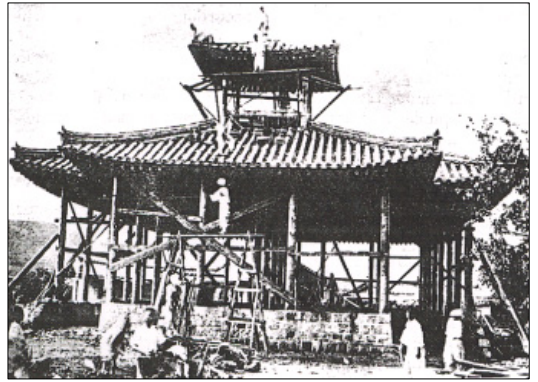


[그림9] 선천 북부교회  
(출전: 『The Korea Mission Field』 1911년 9월호)

#### 4-2-3. 기타

샤록스의 설계로 밝혀낸 이상의 건축물 이외에 그가 설계했을 가능성이 높은 건축으로 아래의 것들을 들 수 있다.

우선 1909년에 완성된 신성학교(Hugh O'Neill Jr. Academy, 그림8)의 새로운 교사건축도 미동병원의 초기 병원건축과 마찬가지로 한옥구조의 현관 포오치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1906년에 완공된 1500명수용의 선천 북부교회(그림9), 1911년에 완성된 1200명수용의 선천 남부교회(그림10, 그림11)는 둘 다 앞에서 언급한 입구를 강조한 샤록스의 건축스타일이 반영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들의 입구가 돌출된 건축수법은 그가 최초로 담당한 허니문 하우스에서 시작된 독특한 의장기법이라고 할 수 있겠다. 또한 북부교회의 진입계



[그림10] 선천 남부교회  
(출전: 『The Korea Mission Field』 1911년 9월호)



[그림8] 선천 신성학교  
(출전: 『The Korea Mission Field』 1911년 9월호)



[그림11] 선천 남부교회  
(출전: 『두고 온 교회, 돌아 갈 고향』)

이상과 같이 샤룩스에 의해 탄생한 한양절충건축은 기존의 한옥건축에 없었던 현관 포오치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정면성을 강조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4-3. 샤룩스에 의한 건축교육과 영향

샤룩스의 활동은 위의 건축활동에 머물지 않고 미션스쿨 수공부에서의 교육을 비롯하여, 그의 협력자였던 한국인 도편수에게도 영향을 남겼다.

우선 그는 미션스쿨에서의 교육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다. 샤룩스와 신성학교의 교장이었던 맥쿤(G. S. McCune)은 둘 다 파크 컬리지 출신이었다. 그러므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대학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신성학교의 한국인 청년들에게도 노동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동일한 실무훈련을 실시하였다. 특히 샤룩스는 수공부에서 3개의 학과를 지도하였는데, 1911년에 졸업한 학생의 취직자리를 보면, 인쇄소(다수명), 초등학교 강사(5명), 서기(書記, 3명), 고등학교 건물관리(2명), 돛자리 직공(4명), 그리고 임시직이기는 하지만 2명이 도편수 밑에 고용되었다고 하니<sup>46)</sup>, 간단한 목공교육도 이루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 샤룩스는 자신이 계획한 건축을 한국인 도편수와 함께 건설하면서 실질적인 건축교육을 시행하였다. 그 일례로, 선천에 인접한 강계(江界) 스테이션의 강계교회(그림12)가 대공간의 건설에 난항을 겪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계교회는 선천에서 유능한 도편수를 불러들이게 되었다. 그 한국인 도편수가 바로 샤룩스에게 건축교육을 받은 자로서 강계교회 공사의 총감독을 맡아 완성시켰던 것이다.<sup>47)</sup> 이는 샤룩스에게서 건축교육을 받은 도편수가 활동의 거점이었던 선천 이외의 인접 지역에서도 활약하였음을 알 수 있는 일례이다.

이상과 같이 샤룩스는 의료활동을 비롯하여, 전도활동, 교육활동, 그리고 선천의 미션 컴파운드의 건설 및 건축활동 등, 개척선교사로서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그는 건강악화가 원인으로



[그림 12] 강계교회

(출전: 『두고 온 교회, 돌아 갈 고향』)

1919년 11월에 가족과 같이 미국에 돌아가서 수술을 받았으나, 결국 같은해 12월 25일에 타계하고 말았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어떤 한국인이 평양에서 의주에 이르기까지 샤룩스의 이름을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라고 표현할 정도였다.」<sup>48)</sup> 라는 기록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가 활동하던 당시처럼 현재의 한국미션건축사에 있어서도 재조명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의 헌신적인 정신은 가족사진(그림13)에 있는 그의 딸(Ella J. Sharrocks)에게 계승



[그림 13] 샤룩스의 가족사진

(출전: 『The Korea Mission Field』 1920년 3월호)

되었고, 그녀는 1926년에 아버지와 같이 의료선교사로서 내한하여 1952년까지 서울 세브란스병원의 간호학과 교수를 비롯하여 안동, 대구 등에서 의료활동<sup>49)</sup>을 통해 샤룩스의 정신을 한국에 이어갔다.

46) 전계서(29)

47) 『From Farthest North in Korea, Tidings from Kang Kei』, 『The Korea Mission Field』, 1910년 10월호, p.252

48) 전계서(29)

49) 전계서(12), p.462

## 5. 클라크(C. A. Clark, 한국명: 郭安連)의 건축활동

1906년의 『The Korea Mission Field』에는 북장로교의 선교사의 명단과 함께 그들의 활동을 요약한 명부가 게재되어있다. 거기에 건축관련의 활동에 종사하고 있던 선교사로서 소개된 인물중의 한 명이 클라크(Charles Allen Clark)이며, 그의 활동에 대해 대구 스테이션의 건축을 지도감독하고 있다고 요약되어있다.<sup>50)</sup>

1878년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태어난 클라크는 1899년에 세인트폴의 맥칼리스트(Macalister) 대학을 졸업하였다. 그 이후에 맥코믹 신학교(McCormick Theological Seminary)에서 신학과정을 수료하고 1902년 9월에 내한하였다. 한국에 도착한 그는 서울에서 선교활동을 위한 준비과정을 밟으면서 1908년에 평양신학교의 교수로서 부임할 때까지 서울의 승동교회를 담당하였다. 그리고 그의 전도활동에 의해 승동교회는 발전하였고,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1905년에 새로운 예배당이 클라크에 의해 계획되었다.<sup>51)</sup>

후에 부임하는 평양신학교에서 그는 실천신학의 교수로서 교육에 정진하는 한편, 다양한 사무도 담당하였는데, 그가 휴가를 위해 미국에 돌아가면 그가 맡았던 일을 6명이 분담하여도 그가 혼자서 했을때보다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표현될 정도였다. 또 그는 회계사무와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도 가능하였고, 설교의 연습이나 기독교 교육도 담당하였다는 기록<sup>52)</sup>을 통해, 그는 건축능력에 있어서도 인정을 받았음을 가늠할 수 있다.

그러한 그가 한국에서 남긴 건축으로 대구의 동산병원과 선교사 주택, 그리고 서울의 승동교회를 확인할 수 있었다.

클라크는 초기에 서울에서 활동을 한 후, 평양에서 신학교육에 전념을 하였다고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대구는 그가 선교활동을 담당하던 지역이 아니었다. 그러한 그가 1906년에 대구에서 펼친 건축활동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왜냐하면 건축을 전문으로 하지 않는 일반 선교사가 자신이 담당하

지 않는 미션 스테이션까지 진출하여 건축활동을 벌인 예를 거의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그에게 맡겨진 대구에서의 건축활동은 선교사 맥퍼랜드(McFarland)의 주택과 동산병원의 건설이었다.<sup>53)</sup> 1899년에 개설된 대구 스테이션은 대구성의 남문 안에 있었던 민가를 개조하여 의료활동을 전개함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후에 성의 바깥에 위치한 동산지역을 구입하여 미션 컴파운드를 개척함과 동시에 본격적인 병원건축으로서 동산병원을 계획하였다. 그 설계는 세브란스병원의 설계자로 알려진 캐나다의 건축가 고든(M. B. Gordon)에게 맡겨졌고, 또한 그 건설을 위해 서울에서 벽돌공이 건너왔다. 고든이 설계한 병원건축은 그 자세한 내용이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구조상의 문제가 있어 1905년의 태풍으로 붕괴되었다고 한다.<sup>54)</sup> 서울에서 벽돌공이 파견되었기는 하지만, 그 혼자서 벽돌에 익숙하지 못한 대구의 노동자를 짧은 기간동안 충분하게 지도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고든의 설계대로 완성시키지 못한 것이 아닐까 라고 추측한다. 붕괴직후, 새로운 병원건축 재건에 서울에서 활동하고 있던 클라크가 지명되어졌고, 그는 1906년 4월에 대구에 오게되었다.<sup>55)</sup>

후에 대구 스테이션은 앞에서 언급한 2개의 건축을 위해 그를 지명한 것은 바른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들 건축에 보인 그의 관심과 정열, 그리고 정력적인 노력은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기록하는 등, 그를 파견시켜준 서울 스테이션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고 표현하고 있다.<sup>56)</sup>

이처럼 높은 평가를 받은 동산병원(그림14)은 1906년에 완성된 벽돌구조에 기와지붕을 덮은 한양절충건축이었다. 또한 이 새로운 병원건축은 고든이 설계한 병원이 준공직후 붕괴되었다는 사정을 고려하면 대구에 세워진 최초의 본격적인 미션 건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클라크에 의해 완성된 이 병원건축의 외관을 특징짓는 것은 지붕 아래의 다락방을 위한 창을 설치하기 위해 계획된 박공부분과 그 지붕에 불규칙적으로 솟아있는 굴뚝이다. 전래의 한옥건축에는

50) 『Presbyterian Mission, North』, 『The Korea Mission Field』, 1906년 10월호, p.231

51) 전계서(12) p.206

52) 박영제, 『한국기독교인물 100년』, p.193

53) 『Korea Presbyterian Mission Report』, 1907년 pp.51-52

54) 『동산의료원 100년』, pp.39-40

55) 전계서(53)

56) 전계서(53)





[그림14] 대구 동산병원  
(출전: 『동산의료원 10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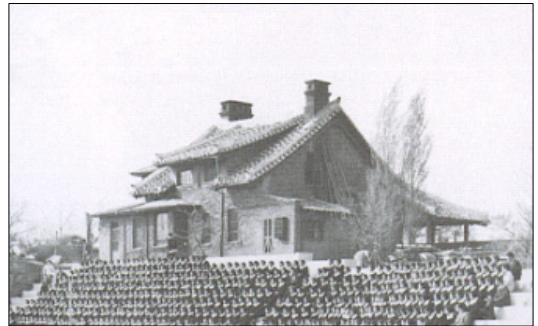
주거를 위해 만들어진 공간으로서 2층 구조를 만드는 것이 거의 전무하였고<sup>57)</sup>, 따라서 서양 건축에서 지붕 아래에 주거용으로 설치하는 다락방 공간도 한옥에서는 비어 있는 공간이었을 뿐, 기능을 가진 공간으로 활용되지는 않았다. 그레함 리에 의한 숭실학교(1902년)가 한옥의 건축형태를 따르면서 2층 구조로 발전시킨 경우라고 한다<sup>58)</sup>, 클라크에 의한 동산병원은 서양 건축의 다락방을 한국의 기와지붕아래에 시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기와 지붕의 박공면에 창을 설치하여, 한옥 지붕과 서양 건축의 지붕창(dormer window)이 주는 어색함을 조정하였고, 한양절충의 또 다른 발전된 형식을 이루어 내었다.

한편 클라크가 대구에서 담당한 또 하나의 건축인 맥퍼랜드(McFarland)의 주택에 대해서는 준공 당시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 단 1989년에 철거되기 전에 맥퍼랜드 주택을 조사한 보고서에 의하면 벽면은 안산암으로 된 대구성의 성돌을 바른층 쌓기 한 기초위에 붉은 벽돌을 쌓고, 층간 돌림띠와 결원아치 창 등으로 꾸몄으며, 지붕은 박공형으로 지붕면에 셰드(shed) 창을 부가한 방갈로 풍의 건물이었다고 보고되어 있다.<sup>59)</sup> 또한 철거전의 맥퍼랜드 주택의 지붕은 한식기와를 얹은 형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구에 비슷한 시기에 세워져 현존하는 선교사 스윗즈(Switzer) 주택이 1981년에 지붕재료를 한식기와에서 합석으로 바꿈으로서 전체의 인

상에 많은 변화를 불러일으켰던 예를 고려하면, 맥퍼랜드 주택에서도 이와 같은 변화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비슷한 시기에 대구에 완성된 에드만(Ederman) 주택이나 에스터의 집이라 불려진 주택(그림15)과 같이 벽돌조에 한식기와지붕을 올린 한양절충양식의 건축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이들 주택은 서양식의 다락방을 설치하기 위한 기와지붕 디자인이 외관을 특징짓고 있는데, 단순한 서양식의 지붕창의 설치가 아니라 지붕의 일부분을 전체적으로 들어올린 형태로 계획함으로써 아메리칸 콜로니얼 스타일의 구성에 한식기와 지붕이라는 이질감을 자연스럽게 조화시켰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한국에 건너온 서양인 선교사가 피선교지의 지역 건축문화와 자신들의 기존 생활양식을 절충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건축적 융화의 시도와 이에 따른 표현방법의 일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15] 에스터의 집  
(출전: 『신명 90년사』)

## 6. 결론

이상으로 장로교 소속으로 초기의 건축활동에 종사한 선교사 윌슨, 샤록스, 클락의 3명을 파악할 수 있었고, 이들을 중심으로 초기 한국미션건축의 전개양상의 일면을 살펴보았다.

이들 개척선교사들은 개척의 임무를 띠고 한국으로 건너와 자신들에게 익숙한 서양의 건축문화를 한국에 소개하였고, 목조를 중심으로 한 기존의 한옥 건축문화에 다양한 방법으로 영향을 주며, 변화를 도출하였다. 그 방법에 있어서 장로교 소속의 개척선교사들은 서양의 건축문화의 일방적

57) 전계서(3), p.61

58) 전계서(3), p.61

59) 한국건축가협회 대구지회, 대구·경북의 건축, p.115

인 이식이 아니라, 서양의 건축문화와 기존의 한국 건축문화와의 융화를 모색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한양절충양식의 미션건축이었다.

예를 들어 사록스는 위생상의 문제로 새롭게 서양식으로 계획한 선천 미동병원을 통해 충분한 서양건축의 지식을 겸비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초기에 계획한 건축은 대부분이 한양절충양식의 건축이었다. 거기에는 한국에 진출한 장로교가 한국에서 계획할 미션건축에 대해 가지고 있던 건축관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초기의 장로교의 건축관은 편리성이나 영구성의 문제 이전에 양심의 문제, 즉 한국에의 동화에 대한 노력과 사명감에 있었고, 그 결과로 기존의 한옥 건축문화에 조화할 수 있는 한양절충양식이라는 독특한 건축문화를 만들어 내었던 것이다.

비록 이러한 동화를 위한 노력은 시간과 더불어 약해지고 말았다. 「서양선교사들은 자기자신을 동양화시키지 못했다. 초기에는 최소한 의복, 생활, 건축 스타일 등에서 동양화를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그들은 이것을 지속시키지는 못했다. 아마도 이것은 실수였다.」<sup>60)</sup>라고 한국교회의 서양화 지향을 반성하는 기사에서도 알 수 있듯이, 초기에 등장한 한양절충양식의 미션건축은 오래 지속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한양절충양식은 기존의 한옥건축에서 서양식 건축으로 발전해 가는 과도기의 결과물로서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또한 개척선교사들은 이후에 건축을 전문으로 하는 건축선교사나 해외의 건축가들에게 한국의 미션건축의 주체로서의 자리를 내어주고 말지만, 한국인 도편수와 더불어 한양절충양식이라는 건축문화를 이끌어 나갔다는 점에서 한국근대건축사에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The Korea Mission Field』 1905 -1941년, (영인본 全37冊: 한국기독교사연구회 발행, 1986년)

2. 『Korea Prebyterian Mission Report』 1897 - 1909년, 1913-1919년

3. 『The Fiftieth Anniversary Celebr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YMCA Press, Seoul, 1934년 (영인본: 한국기독교연구소 발행, 2000년)

4. C. A. Clark 『Digest of the Presbyterian Church Korea (Chosen)』, Korean Religious Books & Tract Society, Seoul, 1918년

5. 백낙준, 『한국개신교사』,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2년

6.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한국 기독교의 역사 I』, 기독교문사, 2002년

7. 한영제, 『한국기독교 성장 100년』, 기독교문사, 1986년

8. 한영제, 『한국기독교인물 100년』, 기독교문사, 1996년

9.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내한 선교사 총람』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94년

10.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두고 온 교회, 돌아갈 고향』 한국기독교역사박물관 제2회 전시회 자료집 (비매품), 2002년

11. 同편찬위원회, 『사진으로 보는 숭일, 90년 약사』, 숭일학원, 2002년

12. 同편찬위원회, 『수피아 90년사』, 수피아여자중고등학교, 1998년

13. 同편찬위원회, 『광주제일교회 90년사』, 광주제일교회, 1994년

14. 同편찬위원회, 『동산의료원 100년』,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1999년

15. 同편찬위원회, 『신명 90년사』, 신명학원, 1998년

16. 同편찬위원회, 『숭실대학교 100년사 (1)평양 숭실편』, 숭실대학교 출판부, 1999년

17. 신인제, 『선교초기 한국 교회건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1985년

18. 김성한, 『개신교 교회건축의 변천과정과 한국 개신교 교회 건축의 특징』, 서울대 석사논문, 1988년

19. 홍순명, 『한국 개신교 교회건축의 유형 변천

60) 「Mission Problems to be Solved-Part II」, 『The Korea Mission Field』, 1927년 9월호, p.190



- 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 박사논문, 1991년
20. 김승배, 『한국·중국·일본의 그리스도교 교회건축 수용에 관한 연구』, 단국대 박사논문, 1999년
21. 도선봉, 『한국근대건축 형성과정에서 나타난 미국 장로회 선교건축의 특성』, 충북대 박사논문, 2002년

# A Historical Study on the Activities of the Presbyterian Pioneer Missionaries in Korea Protestant Mission Architecture

Chung, Chang-Won

(Ph. D., Institute of Industrial Science, University of Tokyo)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early state of modern architecture, specifically mission architecture,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Christianity, and for the goal it deals with the architectural activities of pioneer missionaries. Especially it is a piece in a series of those researches after on Graham Lee, and it is focused on the other representative missionary, R. M. Wilson, A. M. Sharrocks, and C. A. Clark.

Although coming in the capacity of a medical doctor or an educator, they should play all kinds of roles, such as carpenters, educators, and officers. For this mission, even they didn't have a professional knowledge for construction, they should carried on to establish mission compounds, only with their experience and informations. In this process they needed to be assisted by Korean carpenters, surely. The architectures born by them-selves are designed with a unique eclectic style compounded with those of Korean traditional and occidental. That is to say, the pioneer missionaries made a profound influence to create a new tradition of modern architecture in Korea, which is called as Korean-occidental eclectic style in the period of transition.

Moreover, some pioneer missionary, such as Sharrocks, took a part in education of architectural skills. The educated carpenters seemed to be called from outside, and the unique styles could get spread away.

On this point this paper has the meaning to clarify historically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Korean architecture through the survey on their activities, on the contrary of the existed recognition that Korean modern architecture has been evaluated to be imported from outside; therefore having a crevice with the its own architectural tradition.

---

keywords : Mission Architecture, Pioneer Missionary, Presbyterian Missionary

---